

2016-1 가천대학교 <독일의이해> 7주: 욕망, 세기 전환기, 황금의 20년대 + <칼리加里 박사의 밀실>(1920), <메트로폴리스>(1927), <항수>(2006)

계몽철학의 가장 큰 수확: 이성과 자유의지의 확장. 계몽 사상은 산업화와 더불어 성장한 시민 계급의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 계급은 막 시작된 자본주의를 통한 물질적 평등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 및 권력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 이성(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 즉 ‘개념적 사고 능력’ - 본능이나 충동, 감성적 욕구에 좌우되지 않고 사고를 통한 행위, 세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험적 이성비판이다. [...] 네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칸트)

\* 자유의지 - 장애, 구속, 방해’ 등이 없는 상태 - 자유. “~으로부터의 자유”와 “~으로의 자유”를 추구하는 의지. 봉건 사회는 개인의 행동을 여러 겹으로 속박했던 사회였으나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출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적(시민의 정치적 자유) 자유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민적 자유란 기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과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말하며, 정치적 자유는 참정권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자유로, 양자 모두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칸트(1724-1804) ->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고통>(1774) -> 프랑스 혁명(1789년7월14일~1794년7월27일) -> 베토벤(1770-1827), 교향곡 9번(1824) ---->

## 1. 혁명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 -> 1789년 프랑스 혁명(자유, 평등, 박애) -> 1848년 독일의 3월 혁명(절대 왕정에 대한 도전) ---->

### 1) 프랑스 혁명과 독일:

- 혁명 정신과 자유의 실현이 절대군주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제도의 도입과 권력 분산에의 요구로 나타난 프랑스 혁명 초기에 독일의 지식인들은 찬사와 존경을 보낸다. 그러나 혁명이 과격하게 진행되고 급격한 사회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차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 신성로마 제국 해체 전 제후국들 중에서 그나마 힘이 강했던 두 나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에 적대적인 영국, 러시아 등과 연합하여 끊임없이 프랑스에 대항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연이어 패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만다.

- 1804년에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이 무서운 기세로 유럽 정령에 나서자 30년 전쟁(신교와 구교 사이의 전쟁- 이 때 스위스도 독립) 이후로 수없이 많은 제후국으로 분열되었던(약해진) 신성로마제국(906-1806)은 1806년에 결국 해체를 선언하고 만다. 신성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프란츠 2세는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지역의 첫 세습 황제로만 남는다.

- 비인 회의와 독일 연방: 나폴레옹 실각 후 전승국인 유럽 4강(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과 패전국인 프랑스의 대표가 오스트리아 비인에 모여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그러나 1806년에 해체된 신성로마제국은 원상회복되지 못한다. 오스트리아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독일연방(Deutscher Bund)’(동등한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는 39개의 회원국가 보유)를 창설한다.

### 2) 독일의 3월 혁명

① 비인 회의 이후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의 정치와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이 시기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는 프랑스 혁명 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운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스트리아 제국 내의 다민족 국가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발본색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메테르니히는 황제와 교회, 군대, 특히 비밀경찰과 검열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30년 이상 오스트리아와 독일연방을 지배해왔다. 극단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한 상황 속에 (과학/의학 분야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연이은 흉년, 그로 인한 식량부족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결국 독일 연방의 사람들은 그의 강력한 압제에 저항하여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수공업자, 노동자 및 학생 주도로 1848년에 혁명을 일으킨다. 메테르니히는 이 때 영국으로 망명한다.

② 메테르니히 퇴임 후 위기감을 느낀 오스트리아의 황제는 민중들에게 언론의 자유 보장과 헌법 제정, 국민군 설립을 약속한다. 이 시기부터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 있던 이탈리아 지역의 주민들, 헝가리 지역 사람들, 체코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 맞서 봉기하기 시작한다.

③ 오스트리아와 함께 독일 연방 내 강국이던 프로이센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의 혁명을 바라본다. 위기감을 느낀 프로이센의 국왕은 프로이센의 민중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헌법 제정을 약속한다. 그럼에도 1848년 3월 18일 베를린 앞에서는 대규모의 민중 집회가 열리고, 군대가 실수로 발포하여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피를 본’ 민중들의 저항이 극렬해지고 만다. 결국 프로이센의 국왕은 <국민회의> 소집을 약속하고 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회의를 개최한다.

④ 제헌회의에서는 아예 군주제를 폐지하고 연방 헌법을 제정하자는 급진 개혁파와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온건 개혁파가 대립하게 된다. 이어서 1848년 5월 독일 역사상 최초의 국민회의(국민이 투표하는)가 개최된다. 그러나 국민회의 의원 585명 대부분은 법률가,

행정관리, 교수 등 이미 사회적으로 명명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으며, 상인이 38명, 농부가 1명(부농) 포함되어 있었을 뿐 노동자 출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⑤ 그럼에도 국민회의에서는 헌법제정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독일 통일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독일 연방 전체를 통일하자는 대통령안이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지역만 통일하자는 소통일안을 채택한다.(->이 때부터!)

⑥ 1849년 마침내 프로이센의 국왕을 황제로 추대하는 제국헌법이 통과되나 황제는 ‘천한’ 국민들이 주는 관을 거부하고, ‘고귀한 혈통’의 귀족들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겠다며 대관식을 거부한다.

⑦ 이어서 1849년 6월 프로이센 군대가 국민회의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국왕이 직접 ‘귀족들로 구성된’ 제후회의를 소집하여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제국 수립을 선포한다.

⑧ 점점 더 높아지는 프로이센의 위상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 통일에 위기감을 느낀 오스트리아에서는 다시 보수세력이 집권하여 그 이전보다 한층 더 보수적으로 통치한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헌법을 폐기하고 다시 절대 왕정체제로 복귀한다.

⑨ 불안한 국내외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명목 하에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된 독일에서도 군인 중심의 보수 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국민회의에서 제정한 헌법을 폐기, 국왕이 직접 만든 흥정 헌법을 채택한다.

- 이렇게 독일의 3월 혁명이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 2. 프로이센과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재임기간: 1871-1890)

토지귀족(융커) 출신 비스마르크는 현실적인 정치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평화주의자이기도 했던 그는 현상 유지를 최고의 덕으로 삼았다.

„시대의 큰 문제들은 연설과 다수결(의회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과 피**(산업과 전쟁, 즉 국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① 상비군 설치: 프로이센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50만 상비군을 창설. 이 때 주목할 것은 선제 공격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수비를 제 1목적으로 하는 군대라는 점!

② 프랑스 견제: 그러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독일을 재편성하는 데 성공한 비스마르크가 적극적인 선제공격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폴레옹에게 당했던 치욕을 설욕하고자 프랑스를 공격, 독불전쟁(1870-71)을 승리로 이끌어 오늘날 프랑스 엘자스 지방

을 독일 영토로 편입하는가 하면 1871년 1월 18일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독일 제국 프로이센의 국왕 빌헬름 1세의 황제 대관식을 성사시킴.

③ 당근과 채찍 정책: 비스마르크는 특히 사회주의자와 구교(카톨릭)를 견제, 배척하였다.

- 당근: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에 국민들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사회법을 먼저 제정해 버림, 세계 최초의 모범적인 사회보장법 - 질병보험(1883), 상해보험(1884), 노후보험(1889)과 같은 사회 보장 제도가 법제화

- 채찍: 카톨릭에 대한 견제: 1873-75년에는 ‘5월법’ - 두 번의 결혼식(교회, 관청)

엄격한 사회주의자 탄압으로 인해 오히려 반자본주의, 반 산업화를 외치는 사회주의 정당 및 노동조직(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등이 생겨나는 결과를 낳음

④ 반 식민정책: 소통일안(오스트리아 제외 통일)으로 독일을 통일한 후 비스마르크는 더 이상의 외연 확장 및 전쟁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로비에 몰려 1884년 토고에 총독부 설립, 1885년 식민협회 설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식민지를 개척한 이후 뒤늦게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어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⑤ 그러나 29살에 황제로 즉위한 빌헬름 2세(파리에서 대관식을 가졌던 빌헬름 1세의 손자)와의 불화로 결국 1890년 퇴임한다.

## 3. 독일의 신항로 정책과 제 1차 세계대전

1) 신항로 정책: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독일에게는 식민지로 개척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독일은 ‘신항로 정책’(1899년 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의 3B정책)으로 당시 유럽에서 활발한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던 영국(3C정책:카이로,케이프타운,캘커타)과 러시아를 자극하기에 이르고,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추적하며, 유럽 대륙에 국가 간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2) 제 1 차 세계대전: 기존의 식민열강 3 국 협상(대영제국, 프랑스, 러시아) vs 세기 전환기에 새로이 식민지 개척 대열에 뛰어든 3 국 동맹(독일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이탈리아, 그러나 이탈리아는 나중에 배신, 3 국 협상 편에 섬)

전쟁은 1914 년 6 월 28 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유고슬라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으로 촉발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면서 7월 위기가 시작되었고, 국제적 동맹끼리의 갈등으로 심화, 마침내 강대국 간의 전쟁이 되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 주의! 급진적인 변화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오던 교양 시민 계층도 전쟁에 동조하였다.

#### 4. 최초의 공화국 -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3, 비공식 명칭)

①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제 1 차 세계 대전 말인 1918 년 11 월 9 일 쾰(Kiel)에서 수병들이 일으킨 폭동을 시작으로 11 월 혁명이 일어난다. 이 때 독일 제국 황제 빌헬름 2 세는 폐위되어 네덜란드로 망명하고, 독일은 11 월 11 일에 양탄트(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심 연합국)에 항복한다. 11 월 혁명 이후 사민주의자 중심세력으로 부상한 독일 사회민주당(SPD) 주도로 1919 년 8 월 11 일에 독일 라이히(Deutsches Reich)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 공화국 헌법의 초안 및 승인 절차가 혼란스럽던 베를린이 아닌 바이마르에서 마련되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비공식 명칭(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화정의 최대 특징은 민주제 연방국가로 대통령제와 의회의 혼합형태라는 점이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②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 시민들은 처음에는 민주 공화제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 1 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국에게만 유리하게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독일의 식민지와 해외 이권의 포기, 독일 영토 축소와 독일군의 군비 축소 및 제한, 연합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독일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체결한 정부에 대한 반감,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 혼란,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실업난 등으로 인한 생활고 적지 않은 쿠데타 시도 등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회의는 1923 년 최고조에 달했다.

③ 바이마르 공화국의 안정기(황금의 20 년대): 외국 자본 등을 차입(주로 미국으로부터)하여 최신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외교정책 성과로 1924 년 9 월에는 미국의 원조계획인 도스안이 성립되어 전후 배상문제도 해결하게 되었다. 또한 학문, 사상, 예술 방면에서도 눈부실 만큼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나... 마침내...

\*참고문헌

임종대 외: 독일이야기 1, 거름 2000

황윤영, 김미경: 독일문화 오디세이, 글로벌콘텐츠, 2016

\* 시험 범위 정리는 수업 시간 중 슬라이드를 통해서! 따로 정리된 유인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